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1호 HYUNBULNEWS.COM 2026년 6월 10일(음력 4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5월 31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요식에서 사부대중에게 '화두 일념'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리고 있다.

"태산 같은 뜻으로 화두 정진"

5월 31일, 병오년 하안거 결제
영축총림 321명 사부대중 정진
성파 대종사 "오직 화두 일념"

병오년 하안거 결제일인 5월 31일(음력 4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를 비롯한 전국 선원에서 하안거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법요식에서 법상에 오른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뜻을 세우기를 태산과 같이 꿈쩍 않게 세워야 한다"며 "해태심(게으름)을 내어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며, 옆을 돌아볼 새 없이 오직 앞만 보고 정진하여 이번 안거에 대오각성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특히 화엄의 진리를 담은 선구를 인용하며 수행의 본질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성파 스님은 "한 터럭 가운데 대천세계 찰토(부처의 세계)를 다 갖다 두어도 넘치지 않고, 한 구절 안에 모든 법계를 다 포함시켜도 끝이 없다. 이러한 도리를 깨치는 것이 우리가 이번 하안거 결제 동안에 해야 할 일"이라고 설법했다.

그러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온갖 번뇌와 천사만사(千思萬事)의 잔가지를 다 쳐버리고, 오직 '화두 일념'으로만 정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병오년 통도사 하안거에는 총 321명의 사부대중이 방부를 들이고 정진에 들어간다. 비구 선원 80명(보광선원 27명, 극락암 호국선원 15명, 서운암 무위선원 16명, 조계암 대적선원 12명, 표충사 서래각선원 10명), 비구니 선원 57명(내원사 동국제일선원 28명, 석남사 정수선원 29명)이 동참했다.

〈하안거 결제 법어 5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6·3지방선거, 불자 당선인은?

16곳 중 추미애 · 박완수 당선
연등회 회원 이광재는 하남갑
전재수 · 김상욱, 불교인연 깊어
불교유산 발전 약속 오세훈도



추미애



박완수



이광재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불자 당선인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국민의힘) 2명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추 당선인은 55.04%의 득표율로 헌정 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 국회정각회의 고문인 추 당선인은 선거 기간 용주사와 봉선사, 청계사 등 경기지역 사찰을 찾아 불교계와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에는 바쁜 선거 유세 일정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봉선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앞서 4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가르침을 청했다. 당시 진우 스님은 "내가 도민을 이끌어 간다기보다 도민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추 당선인은 "욕심내기보다 진정성을 중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완수 당선인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경남도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창원 성주사 신도로 알려진 박 당선인은 평소 〈천수경〉을 외는 등 신행 활동에 적극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꼽힌다. 올해 4월 창원불교연합 연등축제 봉축탑 점등식에서는 "경남과 창원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불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크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불교계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하남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당선됐다. 국회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 당선인은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불교계와 인연이 각별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서울시의원 불자회 '화엄회' 발족에 기여하고, 초대회장을 맡았던 최기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금천구청장에 확정됐다.

불교계와 인연이 깊은 인사들의 당선도 이어졌다. 동국대 출신인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김상욱 후보가 울산시장에 각각 당선됐다. 전재수 당선인은 지역구(부산 북구갑) 활동 시절부터 사찰 법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스님·신도들과의 유대가 끈끈하다. 김상욱 당선인은 올해 4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만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흔들릴 때가 많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전통문화 계승·선양 공약'을 발표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접전 끝에 최종 당선됐다.

반면 불자인 하정우 전 청와대불자회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했다.

진우 스님 사전투표 "화합 계기 되길"

5월 29일 삼성동주민센터서
상진 스님 5월 30일 투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5월 29일 사전투표를 하며 투표를 독려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서울 봉은사 인근 삼성1동 주민센터 내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진우 스님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투표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책임 있는 실천"이라며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일을 잘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또한 진우 스님은 "선택이 된 분들은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꼭 지켜야 하고, 낙선자들은 훌륭하게 승복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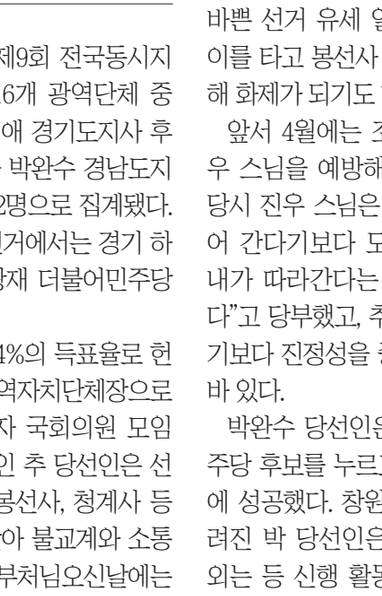
이날 사전투표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이 함께했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5월 30일 양주 장흥문화회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여수령 기자

사령

명) 편집국 기자 박 지 운
이 현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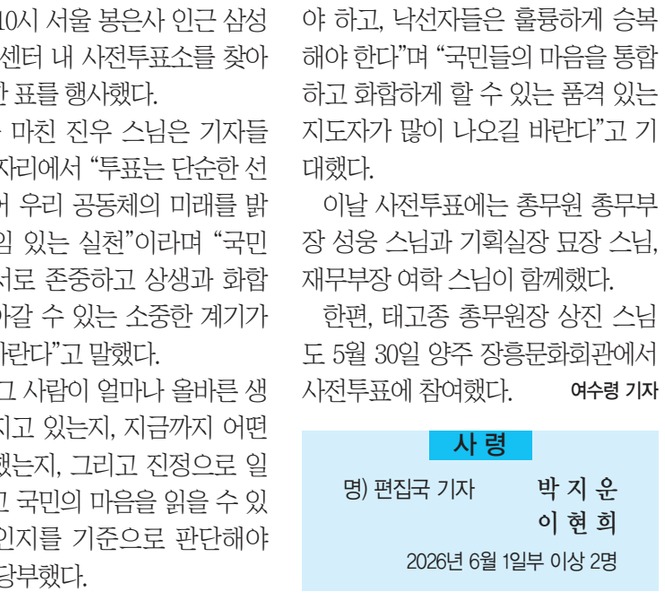
2026년 6월 1일부 이상 2명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퇴우 정념 지음 | 344쪽 | 18,500원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화엄의 세계관으로 읽는 AI 시대 문명 철학서

"수행은 법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성된다"
"불교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퇴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 2026년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 (장충로 2가) 그랜드볼룸 민족사